

이준익 감독 “'자산어보', 욕심 덜고 본질에 집중했다”

조선시대 정약전 흑백으로 담아

“설경구·변요한 진실 연기 감탄”

소박한 인물 이야기…31일 개봉

시대극의 대가 이준익 감독이 돌아왔다. 조선시대를 흑백으로 그린 영화 '자산어보'다. 5년 전 국민시인 윤동주를 무채색으로 담아냈던 그는 이번에는 실학자 정약전을 조명한다.

대단한 영웅의 이야기가 아닌 소박한 인물들의 이야기로 그 시대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을 사람들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동안 사건이 아닌 사람에 집중해 현시대까지 관통하는 역사 속 인물의 가치를 끄집어 낸 그다. 절대적인 존재도 아니다. 윤동주 삶엔 친구이자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송병규 열사를 주목했다면 정약전 옆엔 창대라는 젊은 청년을 세웠다.

19일 화상으로 만난 이 감독은 “한 시대의 위대한 인물의 있다면 그는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며 “그 시대를 헤쳐나간 사람들에게 주목했다”고 ‘자산어보’ 연출 의도를 밝혔다.

영화는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설경구 분)과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변요한)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를 그린다.

극은 조선 순조 1년(1801년) 천주교도를 탄압한 신유박해로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남도의 끝선 흑산으로 유배를 당하면서 전개된다. 신분도 가치관도

다른 이질적인 관계의 정약전과 창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서로의 스승과 벗이 돼 참된 삶의 가치를 깨달아가는 과정을 심도 있게 담아낸다.

“자산어보”를 통해 우리 역사의 근대성을 다루고 싶었다는 이 감독은 동학에 대한 관심이 정약전의 이야기로까지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5년 전 즈음 학문이자 농민혁명인 동학에 관심을 갖다가 왜 이름을 동학이라고 지었을까 생각하게 됐다. 그 앞을 보니 서학이 있었고, 서학이 무엇인가를 쫓아가다 보니 정약전이 있었다. 정약전이 갖고 있는 근대성을 영화로 담으면 재밌겠구나 싶었다.”

정약전이라는 인물 개인에 초점을 맞춘 이유에 관해서는 “거대한 사건, 정치적 이슈, 전쟁, 영웅 이야기를 주로 사극에서 다룬다. 저도 그런 영화를 했는데 사극을 찍으면 찍을수록 사건보다는 사연에 더 관심이 간다”며 “거대 사건이나 전쟁에서 내몰려진 인간은 도구일 뿐이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가공된 설정보다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답했다.

이어 “자산어보는 소박한 인물들의 이야기다. 가공된 것이 아닌 그 시대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 생각했다”며 “2시간이란 러닝타임 안에서 그 시대를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정약전이란 생각이 들어 자산어보에

꽃혔다”고 보충했다.

정약전의 이야기는 실제 역사를, 창대는 허구의 이야기를 옮겼다.

이 감독은 ‘자산어보’ 서문에 짧게 언급된 정도전의 창대에 대한 언급을 한편의 이야기로 확장했다. 영화 시작에서도 ‘자산어보’ 서문을 토대로 제작됐다는 것을 밝힌다

“실존 인물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쓸 때나 현장에서 영화를 찍을 때나 함부로 찍어나갈 수 없었다. 정약전, 정약용은 기록이 있어서 표현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으나 창대는 기록에 이름과 몇몇 구절만 있어서 그의 배경은 허구다. 창작의 여지가 있어 가족 관계와 배경 등을 새롭게 만들었고 약전이라는 인물의 선명성을 드러내기 위한 기능성을 창대에게 부여했다. 고증과 허구가 적절하게 짜인 이야기로 봐주셨으면 한다.”

색채 배제해 인물이 가진 본질적인 형태에 집중

올림이 있는 이야기에 더해 수려한 영상미도 백미다. 전남 신안군 도초도를 비롯해 비금도 등에서 촬영하며 흑산의 아름다운 풍광도 재현했다. 무채색의 미학을 담아 수목화 같은 흑백의 묵직한 힘이 전달된다.

“동주”에 이어 두 번째로 흑백 영화를 제작한 이 감독은 “화려한 색채를 배제해 인물이 가진 본질적인 형태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흑백 영화로 연출했다”며 “조선시대를 흑백으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아서 고집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동주의 성과도 발판이 됐다. 이 감독은 “동주는 제작비 5억원으로 찍는 말



도 안되는 것을 했다. 결혼식장에서 쓰는 비디오 카메라로 찍었다. 검은색이 선명하지 않고 뿌옇다. 저렴한 장비를 썼다”면서도 “동주를 찍으면서 보이는 것에 대한 달성이 뭐가 그렇게 필요한

가 느꼈다. 암울한 시대의 정신만 보여주면 됐지 해서 더 남루하게 표현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동주 성적이 괜찮아서 이번에는 좀 더해보자는 욕심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역시 과욕불급이라 욕심을 덜어내기 위해 계속 노력했다. 본질에 집중하는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설경구·변요한, 인물 그 자체였다”

배우들의 빈틈없는 열연도 작품의 완성도를 높였다. 설경구는 첫 사극이라는 것이 무색할 만큼 정약전이라는 인물이 돼 캐릭터에 완벽히 녹아들었다. 4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 변요한도 가치관의 변화를 겪는 청년 창대 그 자체였다.

이 감독은 설경구에 대해 “이전에 영화 ‘소원’에서 만났는데 배우 이전에 사람으로서 감동했다. 관객은 연기한 외면을 보지만 현장에서는 내면을 본다. 정말 진실한 인간”이라며 “설경구 얼굴에서 조선의 선비 상을 봤다. 내면이 우러나오는 느낌이 있다. 그 자체를 만났을 때 감탄스러웠다. 어렸을 때 할아버지와 한 방을 썼었는데, 어릴 때 내가 봤던 할아버지가 카메라 앞에 서는 듯했다”고 극찬했다.

처음으로 호흡을 맞춘 변요한을 향해서는 “솔직히 이렇게 잘할지 몰랐다. 이런 역할을 본 적이 없다. 창대의 여정을 때론 차갑게 또 뜨겁게 해내는데 가짜 같은 연기가 없었다. 그냥 창대로 보였다고”고 추어올렸다.

자산어보는 31일 개봉한다. 공교롭게도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올해 포문을 여는 한국 상업영화가 됐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한 두개 망하면 접어야 한다(웃음). 나를 위해서라기보다 이 영화에 투자한 사람들을 위해서 흥행했으면 한다. 투자한 돈에는 다 저마디의 사연이 있다. 그런 면에서 흥행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공포가 있다.”

브걸, 사인CD 중고사이트에…이휘재 측 “관리소홀 사과”

해당 CD, 브레이브걸스가 2016년 발매한 앨범 ‘하이힐’



‘역주행 대세’ 걸그룹 ‘브레이브 걸스’가 과거 MC 이휘재에게 선물한 것으로 보이는 사인 CD가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발견됐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리자 브레이브 걸스의 사인CD를 3만4000원에 구매했다는 글과 함께 해당 CD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전에 브레이브걸스가 화제가 되면서 덩달아 같이 화제가 된 그 앨범이다. 의외로 아무도 안 사길래 그냥 제가 한번 사봤다”면서 “비매품인 데다 연연인 사인이나 앨범 같은 것은 처음 사봐서 3만4000원이 싼 건지 비

싼 건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다. 하트 부분이 약간 지워졌지만 신경 쓰일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해당 CD는 브레이브걸스가 2016년 발매한 앨범 ‘하이힐’이었다. 그런데 CD에 브레이브걸스 멤버의 자필로 적힌 문구가 문제가 됐다. “이휘재 선배님께, ‘비타민’ 녹화 때 뵈었는데 기억하세요? 저희 이번 앨범 노래 진짜 좋아요. 선배님께서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나 멋있으신 이휘재 선배님,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것이다.

네티즌은 “안에는 (이와 같은) 편지

가 적혀 있었다. 비타민 녹화가 뭐가 해서 찾아보니 이휘재가 진행을 맡은 건강에 관한 KBS 프로그램이었다”라면서 “이휘재가 선물 받은 거 중고거래에 팔았나 보다”라고 추정했다.

물론 이휘재가 중고 거래사이트에 직접 팔았을 가능성은 적다. 많은 가요계 후배들이 건넨 CD의 상당수는 매니저 등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에 대해 많은 네티즌들이 지적하고 있다.

이휘재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이날 오후 “가수분들에게 받는 사인 CD 등은 담당 매니저가 차량에서 관리해왔으나 16년도 당시 브레이브걸스 CD 역시 차량에 보관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면서 “정확히 어떠한 경로로 CD가 외부로 유출된건지 현재로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이유 여하 막론하고 소중한 메시지가 담긴 선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면서 “브레이브걸스와 팬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이다. 향후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한편 브레이브걸스는 4년 전 발표한 ‘롤린’이 최근 유튜브에서 역주행하면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세븐틴 민규, ‘학폭 의혹’ 일단락…“관련자 모두 기억 없다”

그룹 ‘세븐틴’ 민규를 둘러싼 ‘학폭 의혹’(학폭) 방관 의혹이 일단락 됐다.

소속사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는 21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폭 의혹) 작성자께서 가해자를 명시해줘 당사는 가해자의 증언과 당시 현장을 목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졸업생들의 증언도 함께 확인했다. 결론적으로, 작성자가 주장한 사안을 기억한다고 말씀하신 분은 아무도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민규 역시 “작성자가 주장한 사안이 기억에 없고, 특히 누군가가 맞고 있을 때 이를 즐겁게 지켜보고 부추기면서 욕을 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플레디스는 “작성자가 직접 당시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 친구에게 연락해 확인했으나, 해당 친구도 그런 일이 기억에 없다고 답했다”면서 “이에 작성자는 해당 사안에 관련됐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기억이 없기 때문에 본 사안은 마무리하고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다고 당사에 알려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플레디스는 “이번 뿐만 아니라 이전에 확인된 사안들 모두 아티스트와 관련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은 다행이나, 이런 주장으로 인해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크고 작은 상처를 받게 되고, 이를 대응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는 점을 어디까지 감내해야 할 지 고민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

고 토로했다.

그럼에도 “당사는 작성자와 논의하는 과정을 통해, 작성자가 아티스트와는 별개로 학창시절 교우 관계에서 여러 상처를 입은 분으로 보여 이번 일에 대해서는 별도 조치 없이 사실 관계를 명확히 확인한 것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신원 확인이 가능한 분들과는 접촉 및 논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추가적으로 파악되는 사항이 있을 시 향후 별도로 안내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 민규의 학폭 주장이 제기됐다. 플레디스가 사실 확인에 나서는 동안 민규를 활동을 중단했다.

박봄, 2년 만에 신곡 ‘도레미파솔’ 31일 발매

“11kg 체중 감량 성공하면서 달라진 모습 예고”

가수 박봄이 2년 만에 신곡을 발표한다.

22일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박봄은 오는 31일 새 싱글 ‘도레미파솔’을 발매한다.

지난 2019년 5월 발매한 앨범 ‘리 : 블루 로즈(re: BLUE ROSE)’ 이후 첫 신곡이다. 앞서 tvN ‘은연오프’를 통해

신곡 녹음 현장을 통해 발매가 예고됐던 곡이다.

디네이션은 “박봄은 긴 공백기 끝에 팬들 앞에 나서는 만큼 11kg 체중 감량에 성공하면서 달라진 모습을 예고했다”고 소개했다.

2NE1 출신인 박봄은 지난 2019년 솔로 가수로 변신한 이후 ‘봄(feat.산



다라박), ‘4시44분(feat.휘인 of 마마무)’ 등의 곡으로 각종 음원 차트와 음악 방송 1위를 차지했다.

정준하-신지, MBC 라디오 ‘싱글병글쇼’ 새 DJ

29일 오후 12시20분 MBC FM(서울·경기 95.9MHz)서 방송

정준하와 신지가 MBC라디오 표준 FM의 간판 프로그램 ‘싱글병글쇼’ 새 DJ로 발탁됐다.

둘은 MBC 시트콤 ‘거침없이 하이킥’에서 만나 인연을 맺었다.

정준하는 “‘싱글병글쇼’처럼 전통

있는 프로그램의 DJ가 되어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이 되지만, 따뜻한 모습으로 청취자들과 재미있고 활기차게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신지는 “오랫동안 라디오DJ에 대한 로망이 있었는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며 “평소에 친한 (정)준하 오빠와 함께할 수 있어서 기쁘고, 청취자들에게 기본 좋은 에너지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준하, 신지의 싱글병글쇼”는 오는 29일 오후 12시20분 MBC FM(서울·경기 95.9MHz)에서 방송한다.

윤정희, 7년 만에 안방극장 복귀…송혜교와 호흡

SBS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 출연

배우 윤정희가 SBS 새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로 7년 만에 브라운관에 복귀한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연인의 이별과 사랑 이야기를 그린다. 드라마 ‘미스터리’의 제인 작가와 2020년작 ‘남만닥터 김사부2’의 공동연출 이길복 감독이 만났다.

극 중 윤정희는 유명 백화점을 운영하는 상무이사이자 그룹의 외동딸 ‘신유정’ 역을 맡았다. 그는 지성과 품격

을 갖춰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물이다.

윤정희는 SBS ‘하늘이시여’로 데뷔했다. 이후 KBS ‘행복한 여자’, SBS ‘가문의 영광’ 등에서 주연했다. 2014년 개봉한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도 활약한 바 있다.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는 올 하반기 방송을 앞두고 4월 첫 촬영을 시작한다. 송혜교, 장기용, 최희서, 김주현 등이 출연한다.

